

사회통합 인식 수준의 국제 비교¹⁾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Levels of Perceived Social Cohesion

우선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 글은 한국의 사회통합 인식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와 유럽사회조사(ESS, Round7) 자료를 활용해 국제 비교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통합 인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신뢰 및 공정성 인식, 사회 참여 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고, 이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미쳐 사회통합의 상태를 나타내는 사회적 결속력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다. 둘째, 사회통합의 조건 지표인 안전과 건강 인식으로 측정된 사회적 안정성 지표와 불평등 및 빈곤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 정도로 측정된 사회적 형평성 지표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안정성 측면에서 주관적 인식의 지표들이 객관적 지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이다.

1. 들어가며

'사회통합'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란 쉽지 않다. 그동안 사회통합에 대

한 합의된 정의가 없었음은 많은 관련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는 각 사회 또는 연구자들이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개념 정의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에 대한 다

1) 이 글은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수정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양한 개념적 차이는 그 구성 요소나 측정 지표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Chan et al.²⁾과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³⁾은 사회통합을 신뢰 및 사회적 참여, 연대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고, Berger-Schmitt⁴⁾는 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사회적 포용)와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OECD(2011)⁵⁾는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동을 추가한 세 축으로 사회통합을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지표 구성에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통합을 일련의 '과정(동태적 정의)'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상태(정태적 정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사회통합의 '상태'만 볼 것인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건'을 구분하여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만약 사회통합을 어떤 조건이나 궁극적 상태가 아닌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한다면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통합을 과정으로 보게 되면 궁극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 즉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이 측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나 시기별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통합을 '상

태'를 가리키는 정태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측정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분석의 용이성 측면에서 강점을 갖는다. 또한 사회통합의 조건과 상태 간의 관계가 명확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일지라도 사회통합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건의 차원을 상태와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는 데 유용하다.⁶⁾ 강신욱 등⁷⁾은 '상태' 지표는 사회적 결속력 지표로, '조건' 지표는 사회적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 지표로 구분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하고 사회통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단초를 찾기 위해 국제 비교 관점에서 상태 지표와 조건 지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통합의 상태는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사회통합의 상태와 조건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측정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사회통합의 상태를 나타내는 사회적 결속력은 신뢰 및 갈등 인식, 네트워크 및 사회활동 참여 수준, 삶의 만족도 및 행복 인식으로 측정 가능하며, 사회통합 개선을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사회적 안정성과 사회적 형

2) Chan, J., To H., and Chan E.(2006). Reconsidering Social Cohesion: Developing a Definition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2).
 3) Schiefer, D., Noll, J., Delhey, J., Boehnke, K.(2012). Cohesion Rader: Measuring Cohesiveness. BertelsmannStiftung.
 4) Berger-Schmitt(2000). Social Cohesion as an Aspect of the Quality of Society: Concept and Measurement, EuReporting Working Paper, No.14, ZUMA.
 5) OECD(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aris: OECD Publishing.
 6) 노대명, 강신욱, 전지현(2010).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7) 강신욱, 이현주, 김석호, 박수진, 박은경(2012).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사회통합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평성은 안전 및 건강 인식과 정부의 역할 인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총 22개 지표 중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 14개(음영으로 처리됨)를 통해 사회통합 수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6년에 수행한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이다. ESS 자료는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로서,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비교의 시점이 최근이라는 점과 앞서 언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을 다수 포함해 비교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ESS(Round7)는 2014년 기준 조사 자료이며 유럽 21개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그중 4개국(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을 제외한 17개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⁸⁾

표 1. 국제 비교를 위한 사회통합 지표 체계

구분	영역	지표	
상태 지표	신뢰 및 갈등 인식	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의 이타심 인식	
		타인의 공정성 인식	
		성공 관련 부패 인식	
		정치 영역의 부패 인식	
		빈부 갈등 인식	
		노사 갈등 인식	
	네트워크 및 사회활동 참여	사회활동 참여 정도의 인식	
		친교활동 정도	
		자원봉사 참여 정도	
		정치적 관심도	
		삶의 만족도 및 행복 인식	가구 소득 만족도
			개인 소득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행복도	
조건 지표	사회적 안정성 지표	안전 인식	
		최근 5년 위해 경험	
		건강 상태 인식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	
	사회적 형평성 지표	정부의 역할 인식	
		소득 격차 완화 노력	
		실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	

2. 사회통합 인식 수준의 국제 비교

가. 사회통합 상태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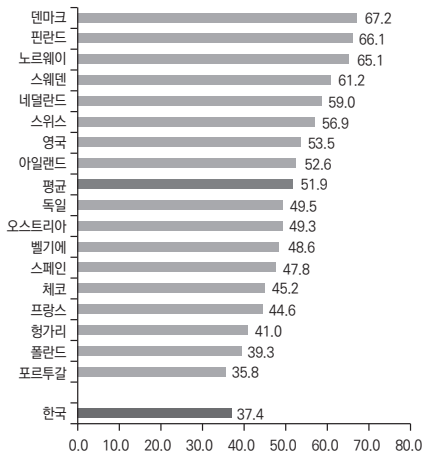
1) 신뢰 및 부패 인식

먼저 사회통합 상태 지표로서 신뢰 및 부패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뢰는 사회통합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이며 공정성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사회통

합의 지표로서 신뢰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와 기관 신뢰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신뢰 등으로 측정되는데, 이 글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⁹⁾을 살펴보았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을 제외한 비교 대상국 평균이 100점 만점 중 51.9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은 이보다 크게 낮은 37.4점이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와 밀접히 연관된 타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역시 한국을 제외한 비교 대상국 평균이 58.6점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한국은 39.3점으로 가장 낮다. 타

그림 1. 타인에 대한 신뢰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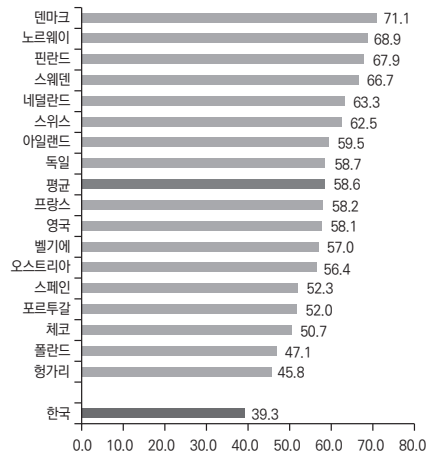


주: 본원 실태조사에서는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로 물었으며, ESS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11점 척도로 물음. 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함.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79 재구성.

그림 2. 타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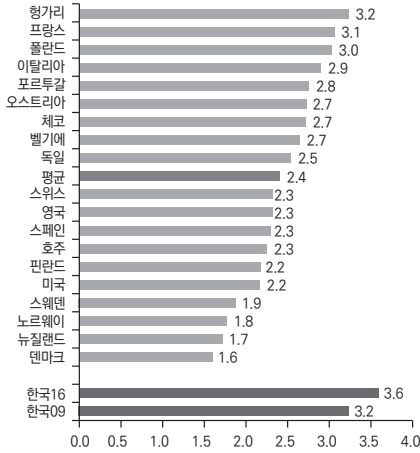
주: 본원 실태조사에서는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로 물었으며, ESS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당신을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정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11점 척도로 물음. 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함.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1 재구성.

8) 일부 사회통합의 국민 인식 상태 진단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ESS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ISSP(social inequality 모듈)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였음.
9) 다만, 본원의 실태조사와 ESS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 질문의 기술이 [그림 1]의 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달라 간접적인 비교가 가능함.

그림 3. 성공 관련 부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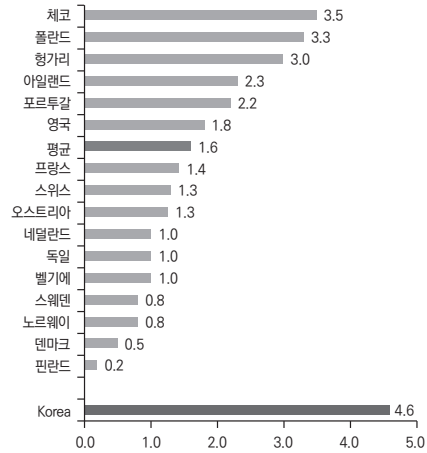
(단위: 점)



주: '오늘날 [응답자의 국가]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①매우 동의한다~⑥매우 반대한다'의 5점 척도로 물음. 위 그림은 이를 역코딩하여 분석한 결과임.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2 재구성.

그림 4. 정치 영역의 부패 인식

(단위: 점)



주: 정치 영역에서의 부패 정도에 대해 '①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다~⑥부패가 매우 심하다'의 7점 척도로 물음.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3 재구성.

인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은 덴마크가 각각 67.2점, 7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대체로 북유럽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부패 인식은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다. 성공(높은 지위)과 부패의 연관성과 정치 영역의 부패 수준 모두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성공과 부패의 연관성에 대한 한국(2009년 기준)의 점수는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은 3.2점이며, 2016년 본원의 조사 결과에서는 3.6점으로 증가해 그 수준이 더 악화되었음을 간접적이거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치 영역의 부

패 정도도 한국을 제외한 비교 대상국 평균이 1.6점인 것에 비해 한국은 4.6점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 국민의 부패 인식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일 방송과 신문 지면을 통해 '권력형 비리' 기사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심각한 부패 인식은 사회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해식 등¹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의 부패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10)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사회적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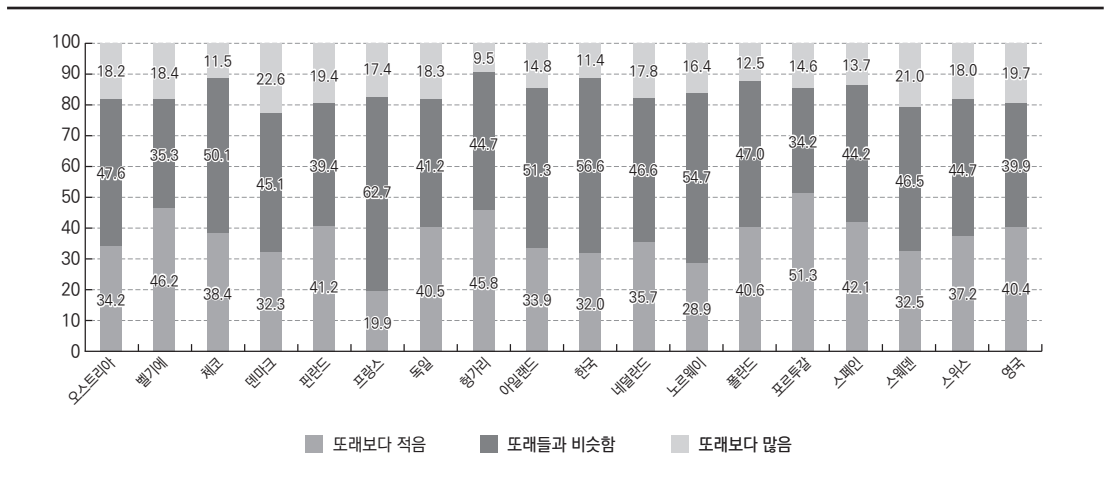
사회활동(친목 모임, 취미 동호회, 각종 클럽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을 높인다. 즉 일과 관련되거나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아닌 사적이고 자발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통합 수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모든 모임 참여가 신뢰 수준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폐쇄적 특징을 보이는 동문회 등의 친목 모임은 신뢰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¹¹⁾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신뢰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5]는 친목 모임 및 취미 동호회 등의 포괄적인 사회활동 참여에 대해 또래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참여 정도를 묻은 결과이다. 한국

은 본인의 사회활동이 또래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56.6%로 프랑스(62.7%) 다음으로 높으며, 또래보다 적다는 응답은 32.0%, 또래보다 많다는 응답은 11.4%로 낮게 나타났다. 또래보다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응답은 덴마크(22.6%)와 스웨덴(21.0%)이 높으며 또래보다 사회활동을 적게 하고 있다는 응답은 포르투갈(51.3%)과 벨기에(46.2%)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또래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사회활동 참여의 정도에서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친목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보다 조금 더 사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친구나 친지 혹은 직장 동료들과의 친교활동 정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한 달에 두어 번' 친교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29.6%로 가장 높으며, '한 달에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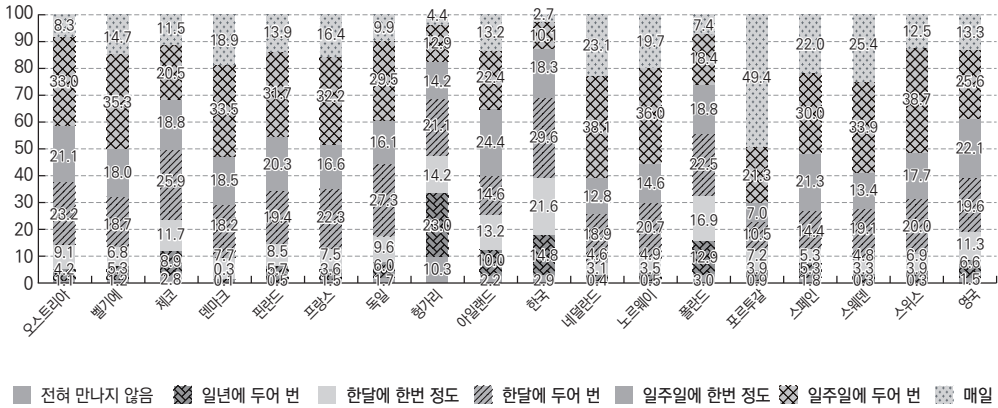
그림 5. 사회활동(친목 모임, 취미 동호회, 각종 클럽활동 등) 참여 정도의 인식



자료: 정해식, 김미근,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5.

11) 정해식(2015).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 통합 상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21호,

그림 6. 친교활동을 위한 만남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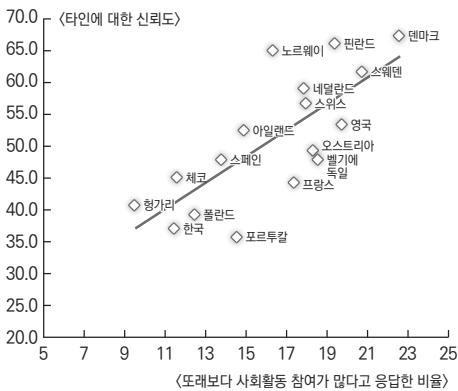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7.

정도’ 하는 사람은 21.6%, ‘일주일에 1번 정도’ 하는 사람이 18.3%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70% 내외의 사람이 ‘한 달에 두어 번’ 이상 친교활동을 하는 것과 대비되는 결과로서,

한국인의 친교활동 정도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사회활동 참여가 또래보다 많다고 응답한 각 국 사람들의 비율과 타인에 대한 신뢰도 수준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친교활동을 하는 사람

그림 7. 사회활동 참여와 타인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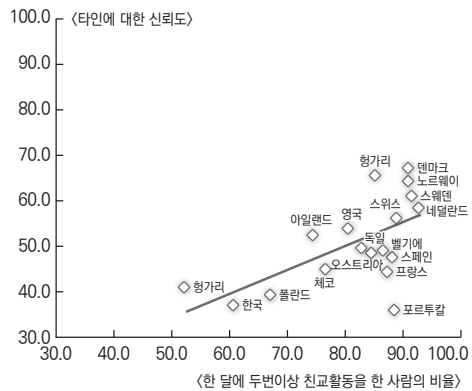
(단위: 점)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6 재구성.

그림 8. 친교활동과 타인에 대한 신뢰도

(단위: 점)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8 재구성.

의 비율과 신뢰도 수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7], [그림 8]과 같다. 대체로 또래보다 사회활동 참여를 많이 한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친교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포르투갈은 [그림 7]에서와 같이 한국이나 폴란드에 비해 또래보다 사회활동 참여가 많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지만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그림 8]에서 보여 주듯이 친교활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뢰도 수준 역시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특이성을 보인다.

3) 삶의 만족도 및 행복 인식

삶의 만족도 및 행복은 궁극적인 사회통합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0~10점 척도로 물은 결과, 한국을 제외한 비교 대상국 평균은 7.2점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6.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행복도 역시 한국을 제외한 비교 대상국 평균이 10점 만점에 7.5점인 것에 비해 한국은 6.5점으로 헝가리에 이어 차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8.3점)이며 행복도 역시 덴마크(8.2점)가 가장 높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행복도와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김미곤 등

그림 9.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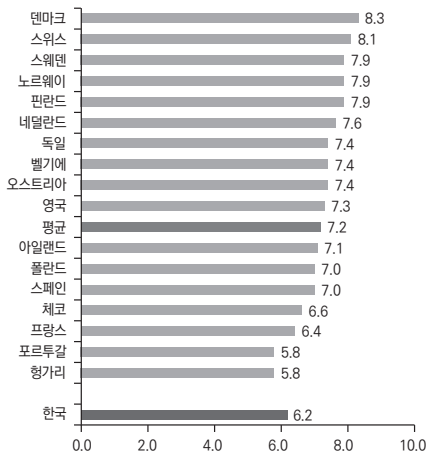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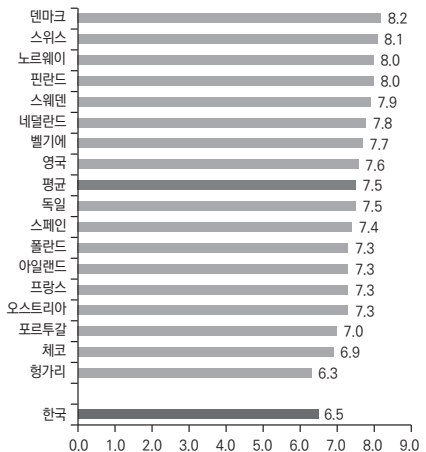


그림 10. 행복도

(단위: 점)



주: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한다'로 응답.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73 재구성.

주: 행복감에 대해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매우 행복하다'로 응답하였음. 단 ESS(Round7)에서는 질문 시점의 행복도를 묻는 반면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어제'의 행복도를 물음.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74 재구성.

(2014)¹²⁾의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행복도와 0.633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나. 사회통합 조건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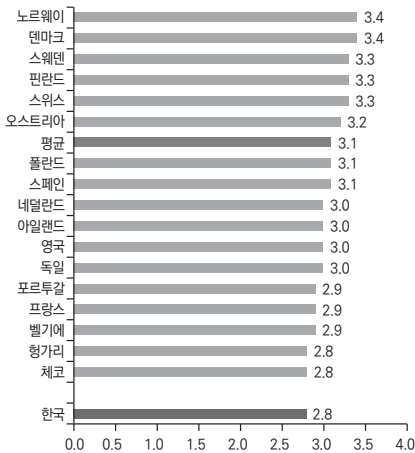
1) 안전 및 건강 인식

사회통합 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건 지표로서 안전 및 건강 그리고 정부의 역할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에 대한 인식은 비교 대상국 중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역코딩한 값을

기준으로 3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을 제외한 비교 대상국 평균은 3.1점이며, 한국은 동유럽 국가인 헝가리 및 체코와 같은 수준(2.8점)으로 최하위이며, 안전감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덴마크(3.4점)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5년간의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에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의 평균(한국 제외)은 18.5%인데 한국은 1.5%에 불과하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는 안전 인식이 높으나 신체적 위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한

그림 11. 밤길 안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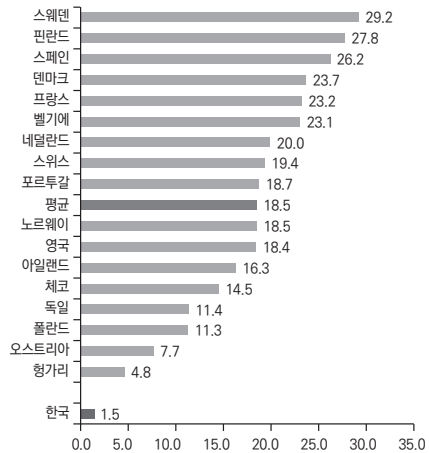
(단위: 점)



주: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에 대해 ①매우 안전하다~④매우 안전하지 않다'로 응답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계산.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75 재구성.

그림 12. 최근 5년간의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 비율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중 신체적 위해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76 재구성.

12)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2.

국과 헝가리는 안전 인식이 낮으나 신체적 위해 경험 비율은 낮게 나타나 실제적인 위해 경험과 인식 수준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 비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한국을 제외한 비교 대상국의 평균 점수가 3.9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좋은 상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은 이보다 다소 낮은 3.6점이다. 건강 문제(지속적인 질병, 장애, 쇠약, 정신건강 등)로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비율 평균(한국 제외)은 25.0%이며 한국은 14.9%로 아일랜드와 같은 수준으로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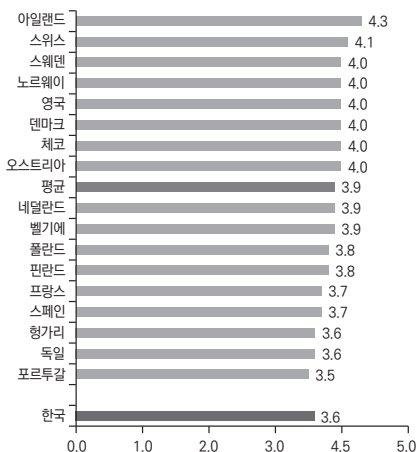
즉, 한국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이 평균 이하였으나 실제로 건강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최하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2) 정부의 역할 인식

또 다른 사회통합의 조건 지표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사회통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통합 상태를 나타내는 사회적 결속 수준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공공사회지출 수준이 높고 빈곤율 및 불평등도가 낮은 조합을 보이는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우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

그림 13.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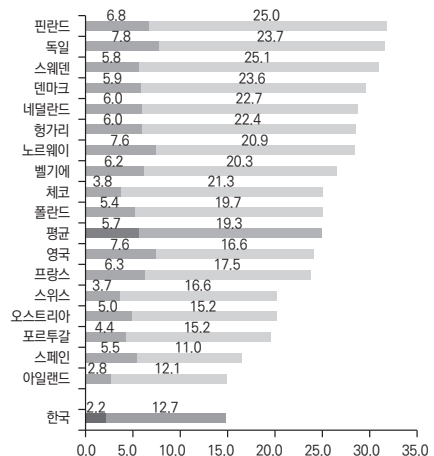


주: 건강 상태에 대해 '①매우 좋다~⑤매우 나쁘다'로 응답한 값을 역 코딩하여 계산.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77 재구성.

그림 14.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 비율

(단위: %)



주: 지속적인 질병, 장애, 쇠약,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①매우 그라하다(진한 색)']와 '②어느 정도 그라하다(연한 색)']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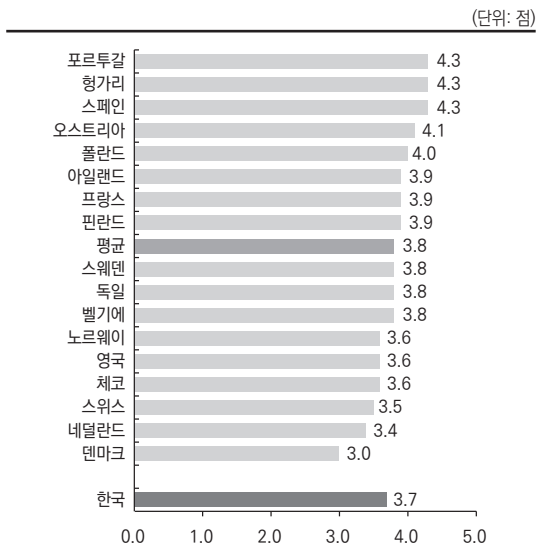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78 재구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선호는 비교 대상국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을 제외한 평균은 3.8점이다. 대체로 정부의 불평등 완화 노력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이다. 한국은 평균과 유사한 3.7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역할에 가장 강력하게 동의하는 국가는 포르투갈과 헝가리, 스페인으로 모두 4.3점으로 나타나는 반면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위스는 각각 3.0점, 3.4점, 3.5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직관적 예측과는 다르게 북유럽 국가군의 정부 책임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남유럽

및 동유럽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 대상국 모두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각국의 불평등 및 빈곤 수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지니계수가 각각 0.342, 0.346으로 높은 편이고,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역시 13.6%, 15.9%에 달해 비교 대상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반대로 스위스와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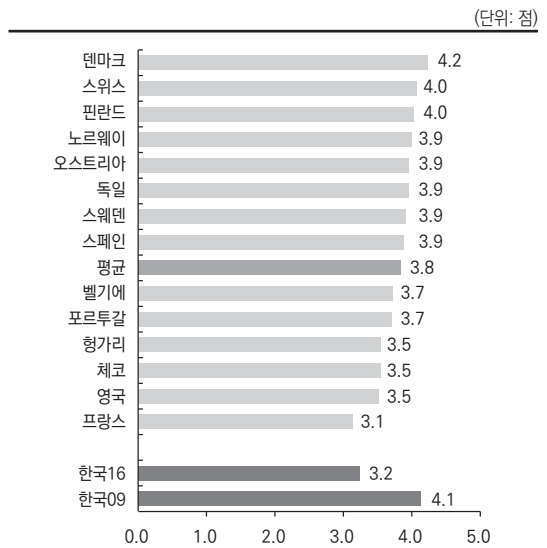
다음으로 빈곤 완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선호 정도를 살펴보면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

그림 15.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인식



주: '①매우 동의한다~⑥매우 반대한다'의 응답을 역코딩하여 계산.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91 재구성.

그림 16. 빈곤층에 대한 정부 혜택 축소에 대한 동의 정도



주: '①매우 동의한다~⑥매우 반대한다'의 응답을 역코딩하여 계산. 평균은 한국의 2016년 점수를 제외한 2009년의 비교 대상국 평균값임.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93 재구성.

13)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IDD)(OECD.Stat에서 2017. 2. 10. 인출).

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한국을 제외한 비교 대상국 평균이 3.8점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와 한국(2009년), 스위스, 핀란드 등이 4.0점 이상으로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프랑스는 3.1점으로 동의도 반대도 아닌 의견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009년에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평균 이상으로 높았으나 2016년 본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2점으로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층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소 높아진 것이다.

3. 나가며

지금까지 유럽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사회통합 인식의 특징은 첫째, 사회적 신뢰 및 공정성 인식, 사회 참여 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고, 이는 결국 국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에 영향을 미쳐 사회통합의 상태를 나타내는 사회적 결속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사회통합 상태의 조건 지표인 안전과 건강 인식으로 측정된 사회적 안정성 지표와 불평등 및 빈곤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 정도로 측정된 사회적 형평성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사회적 결속력 수준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사회통합 측면의 진단과 개선 방안은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된바, 이 글에

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사회적 안정성 지표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한국 사회의 높은 불안심리 문제를 사회통합 측면에서 정리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안전 인식은 비교 대상 국가 중 2.8점(평균 3.1, 매우 안전하다 4점)으로 최하위이지만 이러한 상태 인식과는 달리 최근 5년간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5%(평균 18.5%)로 가장 낮다. 이러한 경향은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과 실제 건강 상태의 간극에서도 나타난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한국은 3.6점(평균 3.9점, 매우 좋다 5점)으로 비교 대상국 평균 이하이지만 실제로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14.9%(매우 그러하다 2.2%, 어느 정도 그러하다 12.7%)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평균 25.0%).

위와 같은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주관적 인식 지표들이 객관적 상태 지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험 인식과 실제 위해 경험의 간극은 불안심리가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 Fisher와 Nasar¹⁴⁾는 범죄에 대한 주관적인 두려움은 실제 범죄 발생의 빈도가 정확히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과 지역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불안감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야간 외출을 꺼리거나 공원 및 상가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회피하게도 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

게 함으로써 고립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여러 연구자들은 이러한 불안감이 사람들의 활동과 활동 범위를 제한하게 되어 심리적 자유를 제한하고, 이웃 간 친목 도모에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써 결국 실제 범죄율을 높이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하였다.¹⁵⁾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불안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 통합 제고를 위해서도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해 준다. 한편 건강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삶의 조건으로서 건강이 나쁘면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관심 및 참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상호 호혜성, 사회 참여, 사회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16) 17)} 이는 객관적인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 상태 역시 사회통합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많은 사회통합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과 관련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주관적 건강 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두 가지 주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비롯한 정서적 문제, 사회병리로 이어지기 쉬운 인식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인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 상태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사회통합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어떠한 조건을 개선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객관적 조건이 양호한데도 상태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분야에서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

14) Fisher, B. & J. Nasar(1992). Fear of crime in relation to three exterior site features: prospect, refuge, and escape, *Environment & Behavior*, 24(1). pp.35-45.

15) 최열(2007). 주거환경과 범죄. *도시정보*, 303호, pp.9-14.

16) 김진향, 팽기영, 김장락, 정백근 등(2012). 행정구역(동읍면)에 따른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지각된 건강수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9(2).

17) 김진현(2016). 사회자본과 건강행태가 노년기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가구 노인과 일반가구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궤적에 대한 비교. *노인복지연구*, 통권71(1)호.